

## [사회 공헌] 코스콤, 저소득 아동 코딩교육 지원



□ 코스콤(사장 정지석)은 1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(회장 이제훈)을 찾아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한 코딩교육 지원금을 전달했다.

□ 소프트웨어(SW) 교육 의무화에 따라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코스콤이 지난해부터 후원해 오고 있는 코딩교육사업은 올해 영등포구 내 6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
□ 코스콤은 스마트로봇과 프로그래밍 언어 ‘스크래치’, 소프트웨어 학습 플랫폼 ‘엔트리’ 등 다양한 교보재를 활용하는 코딩교육프로그램 교육비를 지원한다.

□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 “IT기업으로서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코딩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면서 “비싼 비용으로 코딩교육 수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